

안경환의 법과 문화



광주 1980, 진도 2014, '세월' 너머로

1980년 5월, 그 비극의 계절에 내 몸은 외국 땅에 있었다. 민주주의와 법을 공부 하던 시기에 늦깎이 학생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해 내내 광주의 참극은 세계의 관심 사였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참혹한 현장을 담은 영상이 상연되었다.

OECD국가에서는 말이다. 모르면 모르 되 급던 말 세계 '비정상' 사고의 상위 랭킹은 따 논 대상이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외국인들의 탄성이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위로의 전갈이 날아든다. 고맙지만 부끄럽다. 34년 전 5·18의 참상이 몇 배가 되어 몰려든다. 왜 고난의 뱃길에 하필이면 아름다운 평화의 고장, 남도 땅에서 고장을 일으킨 것일까? 땅길 뿐 아니라 물길마저도 차별받는 것일까?

“저주 받은 땅 내 고향 하와이, 나는 이곳에 수감 찬 몸으로 왔다.” 은 천지가 꿈꿨던 얼어붙은 동토(凍土)였던 '겨울공화국, 그 시절의 보통명사였던 '오적시인' 김지하의 비장한 수사가 되살아난다.

김지하도 아니다. 어김없는 인재(人災)다. 단순한 한 건의 인재가 아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겉치레만 번드르르한 나라, 급조된 '건설공화국'의 진면목이다. 외형적 성장, 물질적 부의 축적에만 열안이 되어 인간의 생명과 안전, 자연과 환경, 아름다운 삶을 뒷전으로 팽개쳐 온 천민자본주의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1년 전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한 새 정부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대통령은 친기업 이념을 천명하면서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정부의 책임 수행은 절대 규제가 아니다. 정당한 규제를 핑계로 부패와 탈선으로 방기한 '관피아'도 책임이 크다.

안전보다 이윤에 눈독이 든 기업이야 새삼 말해 무삼하리오! 돈이면 하느님도 산다는데 말이다! 법 제도와 관행도 문제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 그리고 법관의 문제도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잘못이다. 오래전에 한국 국민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환자라는 국제 사회의 진단이 내려져 있다.

안전한 일상을 그토록 열망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위협에 내다 팔긴 우리가 아닌가. 한 예로, 다수의 국민이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닌가? 선진국에서는 미치광이, 마약중독자나 하는, 그야말로 '비정상'인 짓거리를 말한다.

광주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실로 멀고 험한 길을 넘어 왔다.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혔고, 잔혹한 책임자를 처벌하였고,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주었고 보상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구현된 것은 아니다. 진정된 치유와 정

의는 다시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비상식' '비정상'인 일이 어찌 가려앉은 선박 하나 뿐이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정부도, 관리도, 기업도, 시민도 모두가 함께 각성하자.

대한민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다. 그러나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할 선장과 선원은 승객을 버렸지만 마지막까지 의로운 일에 몸을 바친 시민도 많았다. 우리가 '의인'이라 부르는 분들의 고귀한 행위로 실은 선진국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의 일상적인 미덕에 불과하다.

가진 자, 책임 있는 자, 오래 산 자가 약한 자, 보호 받는 자, 오래 살 자를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이다. 광주를 지켜냈듯이 진도도 품고 '세월' 너머로 가자. 우리 모두 자신이 선 곳을 살펴보자. 내 가족은, 이웃은, 나라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숙고해 보자.

좀 더 벌어도, 덜 허우적거리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열원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종교 칼럼



이원재
광주무등교회 목사

천하(天下) 보다 귀한 생명(生命)

준다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 글 쓰는 이들이 마음에 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자기 영혼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평생의 대작을 만들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이 많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강물처럼 뿜쳐오는 은하수, 바다 속의 산호초, 유유히 헤엄치며 다니는 물고기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바다에서 솟아오른 저 태양, 산 뒤로 사라지는 일몰 등.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으랴.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문제가 사람과 관계된 것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만약 무언가가, 또 누군가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사람은 중요하고, 중요한 존재다.

내일의 기둥이고 우리들의 꿈인 우리 동생 누이들을 삼켜버린 저 진도의 참상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민다. 눈물이 난다.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저 미를 뿐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관계자들도 원망스럽다. 구원할 교주 한 사람의 장난에 놀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이비가 얼마나 무서운가?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를 빗자한 인간의 모입이다.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것은 '말뚝'이란 돈 신(神)이다. 돈 앞에 인간은 너무 약하다. 돈의 힘은 다니엘마이트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어렵게 이른 죄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가?

세월호는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말뚝이었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끌려 결국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총체적인 부실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번만 후진국이란 이름으로 끝나자,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 서로를 위로하자, 우리 모두가 다 유족이다. 피해자요, 가해자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번 일을 모두가 공감하는 지혜로운 마무리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자.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귀하고 값있게 살자.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기고



한국환
봉산초교 교사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지방선거 입지자, 다산 선생의 정신으로

선생에게 큰 환란이 없었지만, 1800년에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1801년(순조초) 천주교에 대한 대 탄압사건인 '신유사화'가 일어나면서 주변 인물들이 참화와 함께 18년 동안 긴 감시 유배생활의 시작된 것이다. 그 긴 귀향 생활 중에서도 1818년에 총 12부 72조로 구성된 '목민심서' 48권이 완성됐다. 이렇게 다산은 운명적 유배지를 창조적 공간으로 이용한 분으로서 항상 백성과 관리를 위한 책의 저술에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오직 북과 벼루에만 의지, 한 쪽 어깨가 마비됐고, 안경에만 의존했으며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유배 생활이 끝나서도 자신의 학문을 마무리해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 결국 일생동안 지은 책이 500권이 넘으며 지은 시는 2460편이라고 한다.

75세로 일생을 마친 다산 선생이 폐인이 되면서까지 저술에 몰두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후세에 꼭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게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올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다산 선생의 이런 정신을 꼭 간직하며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쭙지 않은 글을 감히 이어가고자 한다.

다산 선생은 1816년 5월(16년째 유배

생활)에 큰아들 학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세상 속의 삶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두 개의 기준이 있다. 즉 시비(是非)기준과 이혜(利害)기준이다. 그런데, 시비기준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公的)이고 객관적이며, 이해 기준은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으로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는 4가지 등급이 있다. '등급1'은 옳은 것을 지키면서 이익을 보는 것, '등급2'는 옳은 것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는 것, '등급3'은 그른 것을 지키면서 이익을 보는 것, '등급4'는 그른 것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다산 자신은 스스로를 '등급2'로 평가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義人)으로 평가했다 보다 평생을 본을 보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차원으로 편지에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등급2'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꼭 본받아 간직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법과 조례를 지키며 국민을 위해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일은 당연한 임의기에 모범을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더 강조하고자 한다. 요즘 뉴스로 많이 보는 공직자가 '등급3'과 '등급

4'의 경우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혼탁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확연히 하고 있지 않은가? 부정부패, 횡령, 탈법, 편법 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에게 특히 공직자들에게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들이 바로 서야 지자체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겠는가?

평생 50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사회개혁을 주장한 사상가이며 백성을 위한 개혁의 근본은 애민(愛民)임을 주장한 애민주의자 다산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의 이유가 있다"(정약용 原牧 중에서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오늘날 선출직 정치가, 행정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존재이유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임을 선언한 선각자의 말씀으로 생각된다. "다산의 모든 개혁안은 백성의 편익과 생활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애민정신은 오늘날 민주 사회를 건설해나가고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거울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김시업, 실학박물관장, 한국의 유산, KBS1 2013년9월20일). 다산의 주장은, 지금도 정치나 행정은 국민을 위한 애민 정신과 개혁이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는 큰 가르침이기에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소방방재청 능력 지휘 재앙 더욱 키웠다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 일 첫 신고 내용을 보고받고도 40여 분간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소방헬기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광주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

광주시·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도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첫 신고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소방방재청에 그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자체적으로 광주 등 전국소방본부에 소방헬기 협조요청을 했다. 소방방재청이 출동 지령을 내린 것은 바로 그 직후로, 최초 신고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후였다.

뒤늦게 출동한 광주시 소방헬기는 게다가 현장으로 직행하지 않고, 전남도 고

위장부를 태우기 위해 도청을 경유하는 바람에 현장 도착이 더욱 지연됐다. 전국 소방헬기들도 세월호가 사실상 완전 침몰된 뒤 도착하는 바람에 진도 팽목항 등에 대기하다 귀환해야 했다. 구조는커녕 고가의 연료비만 낭비한 것이다.

광주에서 진도까지 30분 안팎이면 소방헬기가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방방재청이 출동 지시를 조금만 빨리 내렸어도 세월호 침몰 전인 오전 9시30분께 현장에 다다라 좀 더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능력 지령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관행상 해상 재난은 해경의 몫이라는 점에서 육지 재난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국가 재난을 관리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전담기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국가안전처' 신설에 앞서 재난 대응 매뉴얼 재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양파 파동, 폐기가 능사인가

지난 주부터 조생종 양파의 산지 폐기가 시작되면서 반복되는 양파 파동을 막을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양파 가격 파동은 2001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4년 등 1~4년 주기로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폐기 처분으로 땀 흘려왔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파 가격은 재배 면적과 재고량, 수많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번만 후진국이란 이름으로 끝나자,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 서로를 위로하자, 우리 모두가 다 유족이다. 피해자요, 가해자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이번 일을 모두가 공감하는 지혜로운 마무리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자.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귀하고 값있게 살자.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 생명을 경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790억 원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양파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지 폐기에 따른 정부 지원은 '취꼬리'에 그치고 있다. 최저 생산비는 1kg당 350원이지만 지원비는 215원에 불과하다. 이익은 처처하더라도 '순해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다. 양파와 대파, 겨울배추 등 இத따른 산지 폐기는 가격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농정당국과 농협은 농민들에게 적정 재배 지도와 계약 재배, 직거래시장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 또 폐기 농가에 대한 지원비를 최저 생산비만큼 올리고, 주산지에 한해서는 생산비 보장과 대체작물 돌려짓기 등에 혜택을 주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無 等 鼓

순천에는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가격의 도서관이 있다.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건축가 정기용이 설계한 공간이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어린이들이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작은 우주가 되길' 원하며 노(老) 건축가가 뿌렸던 씨앗이 근사한 열매를 맺었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춘 공간이 그렇고, 마룻바닥에 편히 앉아 책을 읽는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

머칠 전 순천에 또 하나의 특별한 도서관 문을 열었다. 기존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순천 그림책 도서관은 국내의 그림책 3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에릭 칼 그림책 원화 전시회(6월 22일까지)가 진행 중이다. '색의 마술사'로 불리는 에릭 칼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배고픈 애벌레', '파란말이' 등을 그린 유명 작가다.

순천시는 지난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나고 싶은 그림책 작가'를 조사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구름빵', '달시베트'의 백희나 작가, '마당을 나온 암탉'의 황선미 작가 등 아이들이 선택한 작가들의 원화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아이들은 1년 열두달 행복한 그림 선물을 받게 되는 셈이다.

머칠 전 교보문고가 최근 2년간 유아·어린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작가를 발표했다. 유아책(0~7세) 작가는 '돼지책', '우리 엄마'의 앤서니 브라운, 어린이책(8~13세)은 학습만화 '수학도둑' 시리즈의 송도수가 꼽혔다. 그밖에 그림책 '괜찮아'의 최숙희, 백희나, '지연이와 병관아 시리즈'의 고대영, '강아지몽'을 쓴 고(故) 권정생, '100층짜리 집'의 이와이 도시오, '사랑해 사랑해'의 버논 중양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순천 그림책 도서관은 국내의 그림책 3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에릭 칼 그림책 원화 전시회(6월 22일까지)가 진행 중이다. '색의 마술사'로 불리는 에릭 칼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배고픈 애벌레', '파란말이' 등을 그린 유명 작가다.

순천시는 지난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나고 싶은 그림책 작가'를 조사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구름빵', '달시베트'의 백희나 작가, '마당을 나온 암탉'의 황선미 작가 등 아이들이 선택한 작가들의 원화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